

■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심사(소설 및 총평) 이기호 소설가

2023년 한 해 동안 글틴 ‘쓰면서 뒹글’ 창작게시판에 응모된 작품은 총 2,057편이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가만히 그 숫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솟품이니 웹툰이니 SNS니, 범람하는 시절이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만의 세계를 짓고자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 그 시간의 총합 앞에선 누군들 견뎌낼 수밖에 없지요. 사실 바로 그 시간이 문학이고, 문장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거기에서 파생된 작은 것들이지요. 본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은 모두 그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허투루 작품을 읽어낼 수 없는 의무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월 장원 52편 중에서 예심 심사위원들이 숙고해서 가려낸 19편이었습니다. 장르별로 보자면 감상&비평 부문 5편, 소설 부문 4편, 수필 부문 5편, 시 부문 4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본심 회부작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2024년 1월 12일 함께 모여 열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소설 부문의 「검은 발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시 부문의 「확신」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검은 발의 이방인」은 카뮈의 「이방인」으로부터 촉발된 이색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종의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던지고 일어나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인데, 그 에피소드들이 모두 낯설고 흥미로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카뮈와 ‘맞짱’을 뜨겠다는 문학적 야심과 문제의식을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문장과 대화가 다소 거칠고 마무리가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문제의식의 현재성만큼은 모든 심사위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야심 또한 충분히 격려받아 마땅하다는 의견도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확신」 또한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새뽕로부터 시작해 꿀벌과 말벌, 사탕 껍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나아가는 사유의 전개가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의 조탁이나 사유의 깊이 또한 시인 자신만의 세계를 충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설 부문 대상작들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지닌 한계와 모순, 그에 따른 관습적인 이미지들을 사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날카롭게 드러낸 「청춘」과 종말의 시간 앞에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들을 고집스럽게 묻는 작품인 「생명의 여름」은 서사의 힘과 질문의 집요함이 끝까지 유지된 소설들이었습니다. 가족 내 불화의 모습을 시종일관 정직하고 담백하게 그려낸 「애수」 역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뒤흔들만한 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계속 써 나가면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본래 문학상의 심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아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나누는 것일 뿐, 이번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은 충분히 갈등했고, 또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설령 이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실망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작품을 충실히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은 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심사위원 일동